Heungkuk Securities

2026-03-13

HK ESG Strategy

에너지 위기에서
에너지 전환으로

ESG 투자전략
이영원
02) 739-5848
youngwon@heungkuksec.co.kr

Executive Summary

1. 중동의 전쟁, 에너지 위기

이란과 미국-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중동의 에너지 물동이 멈춰 서면서 에너지 위기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음

지상군이 투입되는 전면전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나, 사태 장기화 여부에 따라 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수입 비중이 높은 동아시아 국가(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의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

필요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우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취약한 구조, 에너지 독립이 필요한 상황

2. 혁신산업의 에너지 수요 급증과 태양광+BESS를 통한 공급 확대

AI의 확산과 발전이 가파르게 진행중인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용을 위한 막대한 신규 에너지 수요가 제기됨

미국, 중국, EU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도 소버린 AI 등 신규 투자계획 공격적으로 수립

한국의 데이터센터 구축에 GW급 전력 수요 발생, 전국 데이터 센터 계획 수요를 더할 경우 5GW이상의 신규 수요 발생

전력 공급을 위한 증설은 태양광설비가 주도. 설치비용의 빠른 하락에 힘입어 100TWh의 전력 공급 이후 1000TWh의 공급까지 공급량 10배 증가에 8년 소요, 2000TWh까지 추가 3년 소요

BESS와 결합해 간헐성 문제 극복하며 현실적 대안으로 부각 중

3. 한국 에너지 전환의 방향

AI와 반도체 투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전력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태양광, 풍력은 물론 원자력 등 가용한 자원의 집중 투입이 절실한 상황

대규모 전력 수요 설비의 구축에 따라 송전 문제도 중요 변수로 부각. 장거리 송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지산지소 형태의 산업 배치 불가피. RE100 산업단지 등 모색

현대차 그룹의 새만금 투자, 전력생산과 수요 설비의 연계로 지산지소의 구체적 사업모델 구축

차례

1. 중동의 전쟁, 에너지 위기? – p.4

2. 혁신산업의 요구, AI와 전력 – p.8

3. 태양광,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현실적 대안 –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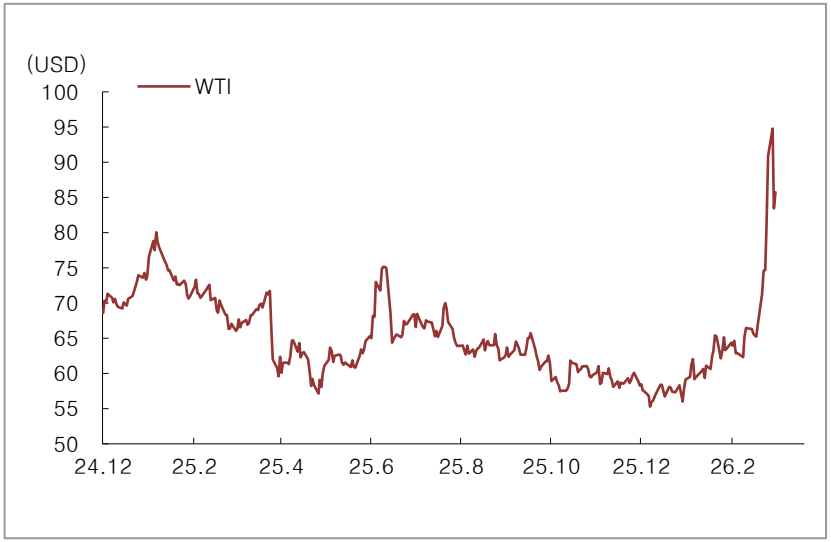
4. 한국 에너지 전환의 방향 – p.17

중동의 전쟁, 에너지 위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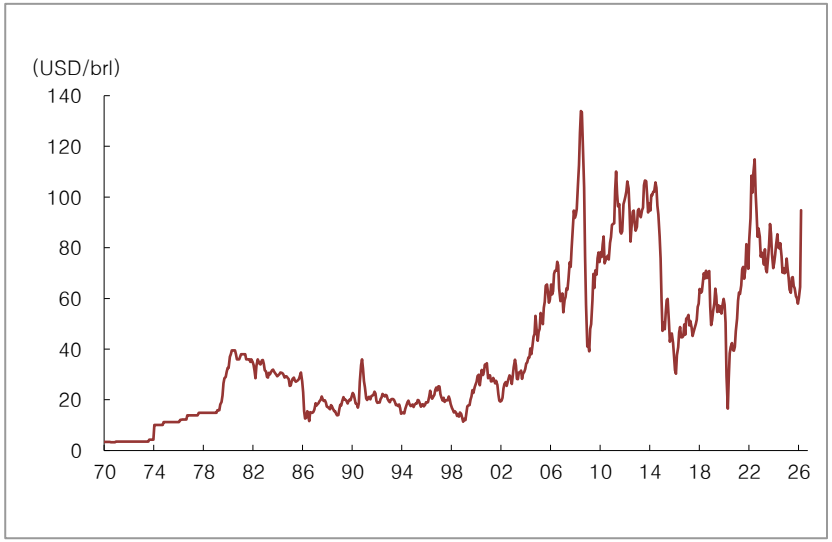
- 2/27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공습에 나섬. 핵시설과 미사일 등 주요 군사적 목표와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등 지도부 공격으로 사망 확인
- 전쟁의 영향으로 WTI기준 유가 장중 100달러 돌파, 2022년 이후 최고 수준 기록
- 그러나 과거 유가 급등 시기와 비교해 보면 본격적인 위기 국면 진입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
-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봉쇄될 경우, 유가 100달러 이상, 150달러까지도 상승 할 수 있다는 경고

WTI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1970년 이후 WTI유가 장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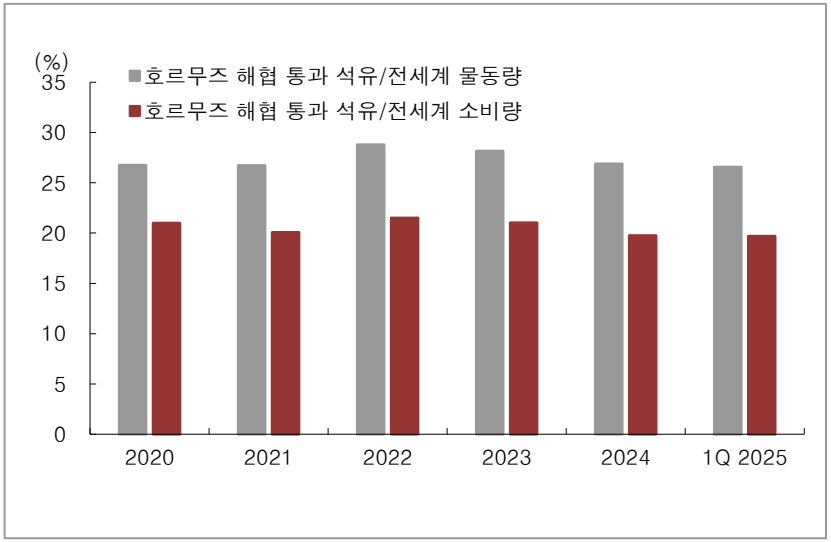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중동의 전쟁, 에너지 위기?

호르무즈 해협과 한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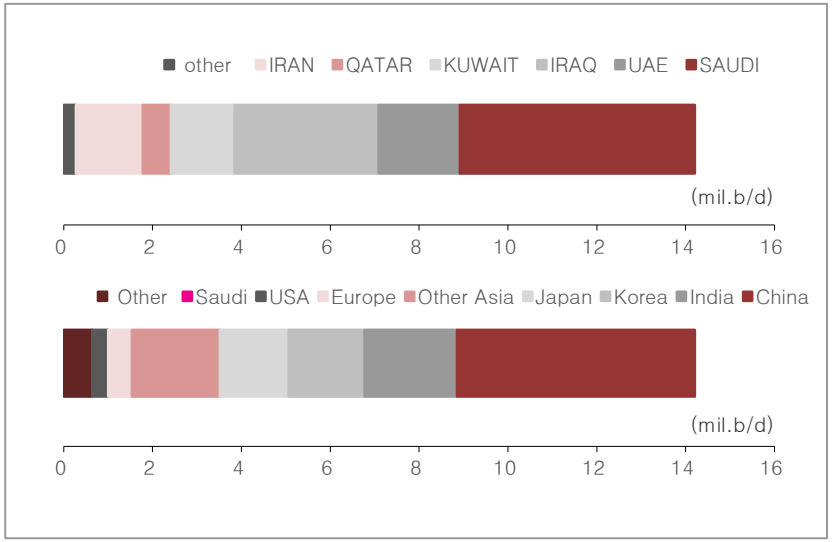
- 호르무즈 해협은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바레인, 카타르, UAE 등 걸프만 주요 산유국의 석유가 아시아로 향하는 핵심 통로에 위치함
- 전세계 석유 물동량의 26~28%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며 전세계 석유 소비량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음
-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사우디 아라비아, 석유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임. 중국에 이어 인도, 한국, 일본 순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입하고 있음
- 장기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한국의 석유 수급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석유의 점유율



자료: EI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의 생산국과 소비국



자료: EI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중동의 전쟁, 에너지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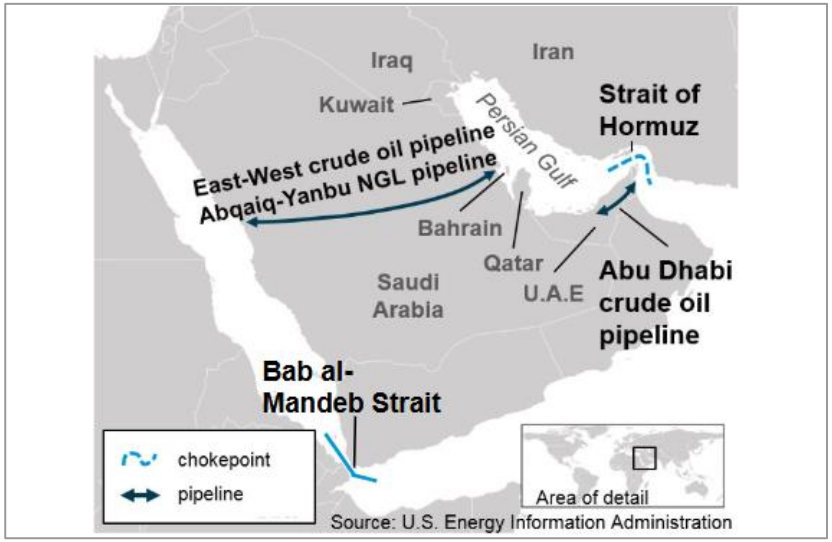
전쟁 경과와 유가 동향

- 전쟁 개시 직후 치솟았던 유가는 전쟁의 전개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제공권을 장악한 가운데 이란의 주요 지역에 대한 공습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을 이용한 반격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임.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내 미군 기지 뿐 아니라 미국에 우호적인 걸프만 연안의 중동 국가의 민간시설, 에너지 시설에도 공습을 감행함
- 지상군 투입을 통한 전면전 성격으로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습 위주의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사우디아라비아 횡단 파이프 라인과 UAE의 오만 우회 파이프 라인이 주목받고 있음

이란 전쟁, 이란과 이란의 공격을 받은 주변 국가

자료: BBC,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파이프 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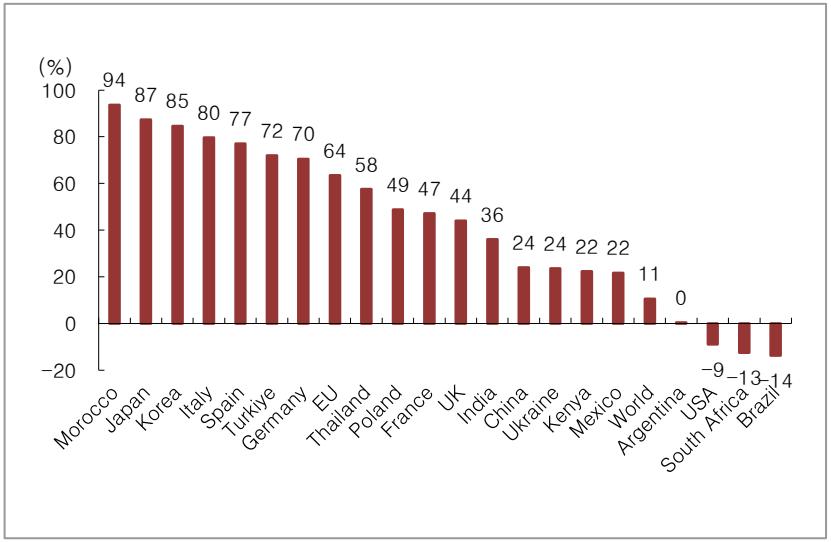
자료: EI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중동의 전쟁, 에너지 위기?

유가 불안정에 따른 한국 경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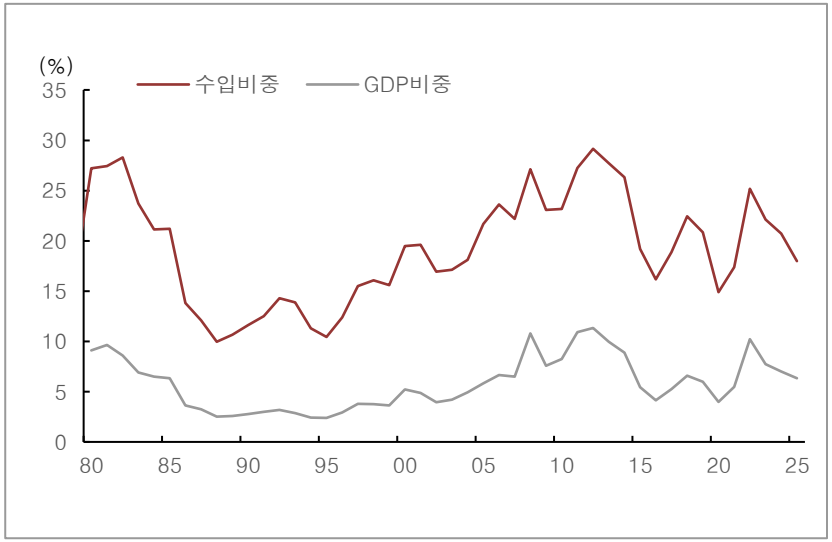
- 한국은 에너지를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인구 2천만명 이상의 전세계 국가들 가운데 에너지 수입의존도 면에서 한국은 모로코, 일본에 이어 3위에 해당
- 한국의 에너지 수입비용은 전체 수입의 20% 내외, 전체 GDP의 5~10%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평균 유가가 두배 이상 상승하는 고유가 시대로 전환될 경우 한국 경제의 에너지 비용 부담은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음

주요국 에너지 수입 의존도



주: 2023년 기준, 인구 2천만명 이상 국가 기준
자료: World Bank,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에너지 수입이 전체 수입,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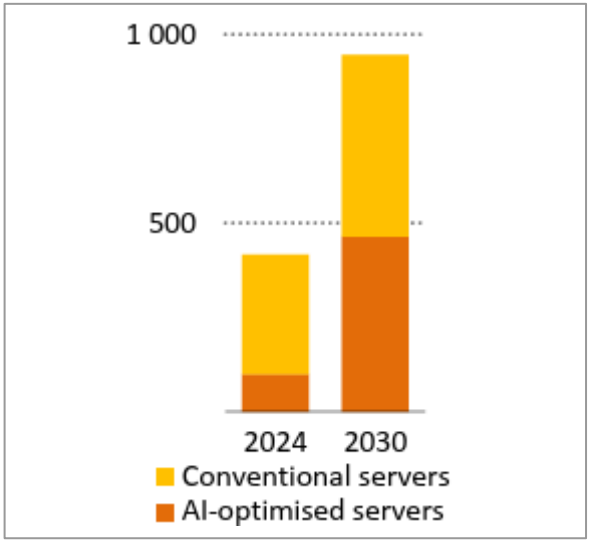
자료: KITA, IMF,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혁신산업의 요구, AI와 전력

미국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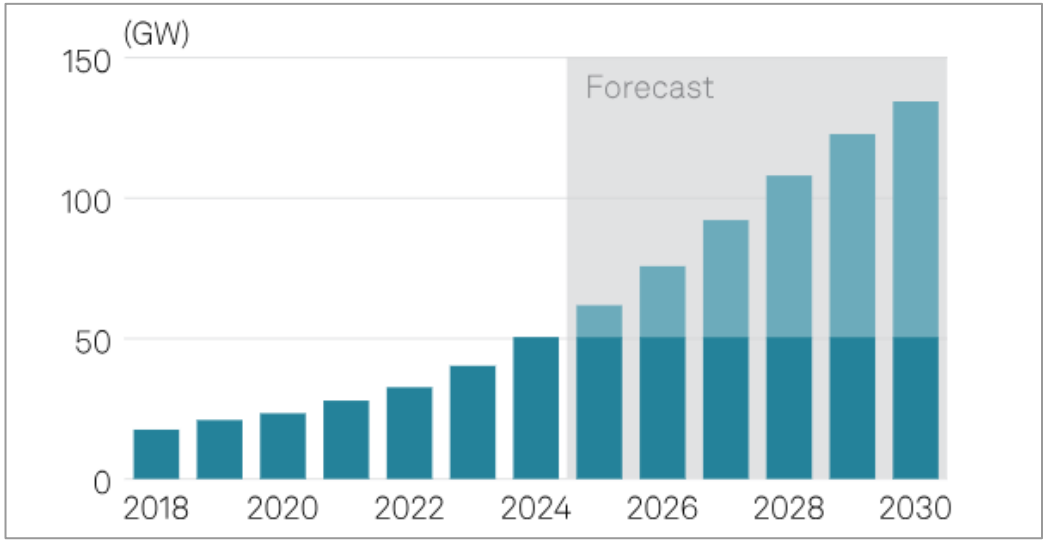
- IEA에 따르면 전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AI용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의 주도로 2024년 대비 2030년까지 두 배 증가가 예상되며, AI용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2024년 대비 2030년까지 다섯 배 증가가 예상됨
-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미국, 중국, 유럽이 전세계 수요의 85%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S&P Global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2030년 134.4GW까지 증가할 전망. 2024년 대비로는 3배 예상
-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임대 및 암호화폐용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2025년 61.8GW, 2026년 75.8GW, 2028년 108GW, 2030년 134.4GW 예상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전망(TWh)



자료: IEA,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전망



자료: S&P Global,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혁신산업의 요구, AI와 전력

국내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 급증

- 미국 등 선진국 뿐 아니라 국내 데이터센터 투자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투자 상위 10곳을 전력 설비 기준으로 선정하면 총 설비 규모는 5.26GW에 달함
- 최대 규모로 계획된 곳은 경북 구미 1.4GW, 이어 경북 포항 1.0GW, 울산 남구 1.0GW, 전남 해남 1.0GW
- 지방 자치단체의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과 별개로 국가 차원의 소버린 AI 투자 계획, 개별 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계획 등 병존
- 각 기업의 투자 계획이 지자체별 투자 계획과 연계되어 구체화되는 수순 진행 중. AWS의 울산 데이터 센터 등이 그 사례
- 현대차 그룹의 새만금 데이터센터의 경우 처럼 지자체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현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데이터 센터로 인한 추가 전력수요는 2038년까지 총 4.4GW로 반영
- 데이터 센터 이외 반도체 팹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시설의 투자에 대응하는 전력 공급이 필요한 상황

국내 데이터센터 투자 상위 10

자료: 아시아투데이,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혁신산업의 요구, AI와 전력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추정

- AI에 최적화된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 2026년 NVIDIA는 한국 정부와 기업에 AI용 GPU 26만장을 공급키로 발표
- NVIDIA의 GPU로 AI 서버를 구성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경우 전력 수요량을 추정

  [Grace + Blackwell 아키텍쳐]

  36개의 Grace CPU와 72개의 Blackwell GPU로 서버랙 구성 시 서버랙 총 전력 수요는 120kW

  냉각, 전력 손실을 포함한 총부하는 PUE 1.2~1.5 적용에 따라 144kW ~ 180kw

  1만장 GPU로 데이터센터 구축할 때 서버랙 전력 수요는 16.7MW, 총부하는 PUE 1.2~1.5적용시 20MW ~ 25MW

  [Vera + Rubin 아키텍쳐]

  36개의 Vera CPU와 72개의 Rubin GPU로 서버랙 구성 시 서버랙 총 전력 수요는 216kW

  냉각, 전력 손실을 포함한 총부하는 PUE 1.2~1.5 적용에 따라 259kW ~ 324k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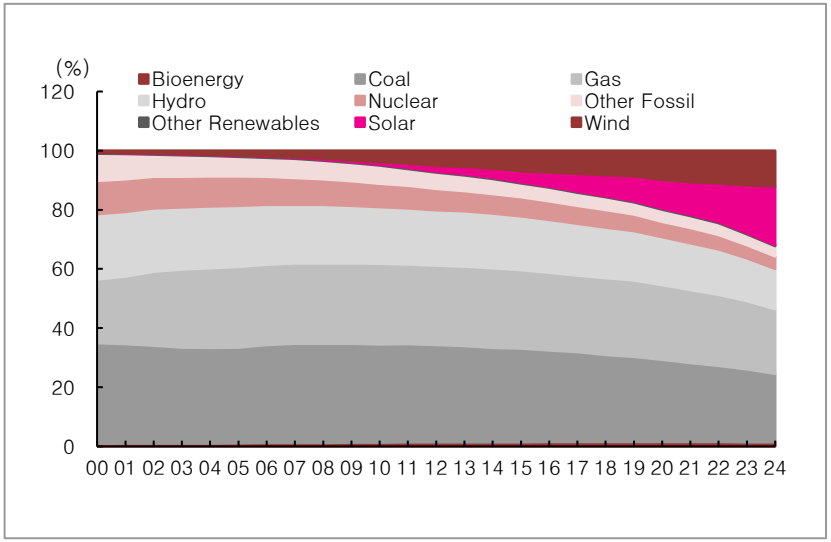
  1만장 GPU로 데이터센터 구축할 때 서버랙 전력 수요는 30MW, 총부하는 PUE 1.2~1.5적용시 36MW ~ 45MW
- NVIDIA의 GPU 26만장 공급이 기업별로 5~6만장씩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아키텍쳐에 따라 서버 전력 수요는 83.5MW에서 150MW, 냉각 등 시스템 전력수요까지 감안할 경우 최대 125MW에서 225MW의 전력 수요가 발생
- NVIDIA의 공급 계획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센터 건립 시도 진행 중. AWS, Meta 등 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 등은 NVIDIA 공급과 무관하게 추진 중

태양광,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현실적 대안

급격한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주목되는 태양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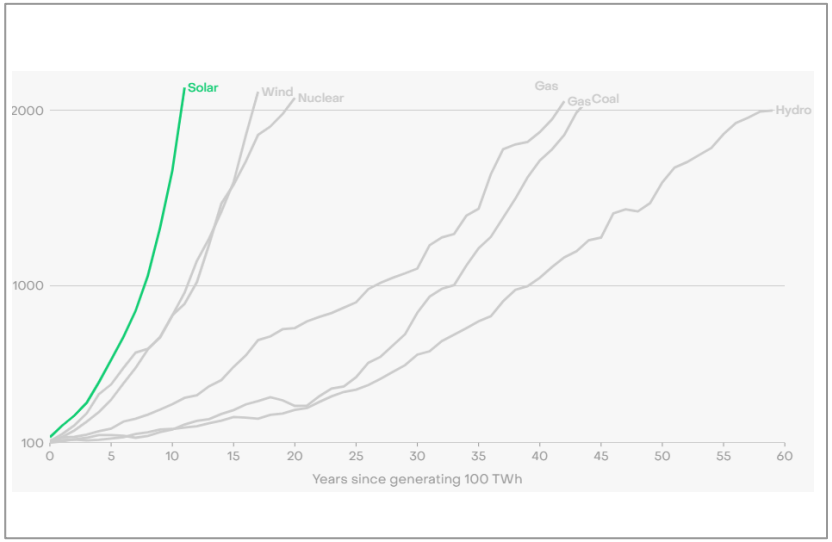
- AI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수요와 맞물려 태양광 설비의 급격한 증가가 주목되고 있음
- 전세계 전력 설비에서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4.7%, 2020년 9.7%에 불과했으나 2024년 19.9%까지 폭발적으로 증가. 2024년 석탄 23.1%, 가스 21.9%에 육박하며 3위를 기록, 1~2년 내 역전될 것으로 예상
- 태양광의 보급 속도는 여타 전력원에 비해 매우 가파른 모습. 100TWh 발전 이후 1000TWh 발전까지 확장하는데 걸린 시간이 석탄 30년, 가스 25년, 원자력과 풍력이 10년씩 소요된 것에 비해 태양광은 8년만에 10배 발전량을 기록했고 2000TWh에 도달하는 데에는 추가 3년이 소요됨

2000년 이후 전세계 전력원별 전력 설비용량 구성비



자료: Ember,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전력원별 100TWh 발전 이후 1000TWh, 2000TWh 도달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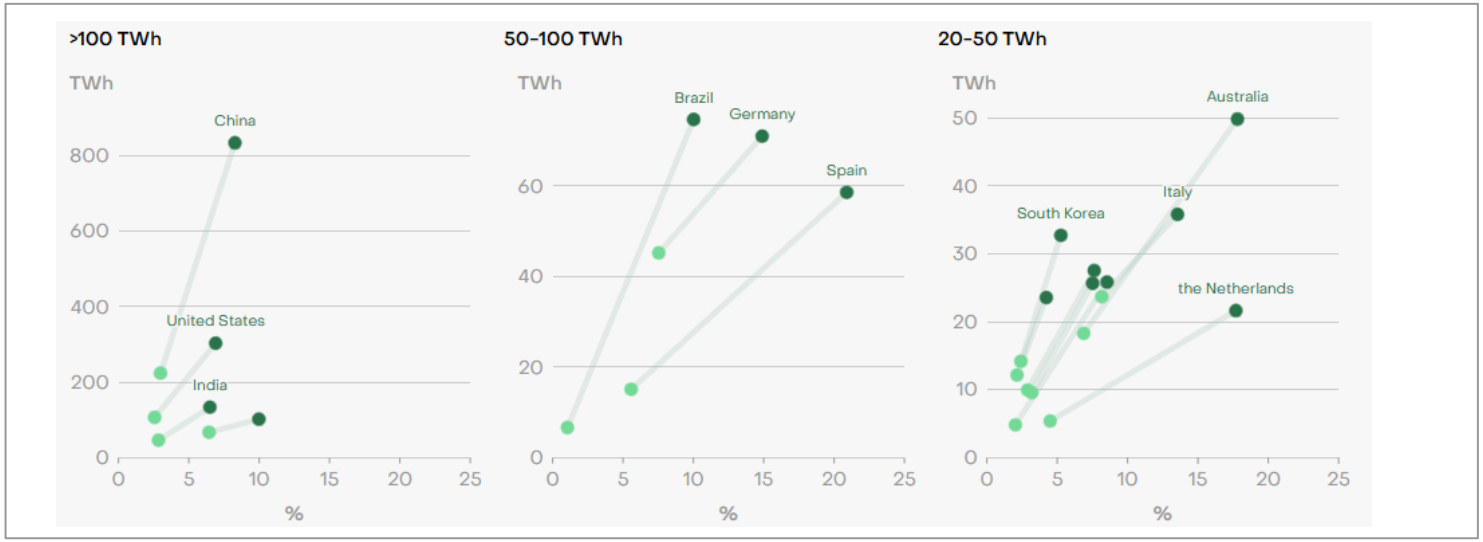
자료: Ember,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태양광,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현실적 대안

경제규모, 소득수준의 차이에도 태양과 확산은 보편적 현상

- 현재 태양광 발전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단연 중국. 중국 이외에도 미국, 인도, 일본 등이 발전량 기준 100TWh를 넘어서고 있으며 발전 비중이 10%에 육박하며 태양광을 선도하고 있음
- 스페인, 독일, 브라질 등은 전체 발전량은 100TWh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발전비중이 10%를 넘어서며 빠른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며, 한국을 포함한 호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서 50TWh에 육박하는 태양광 발전을 기록하고 있음
- 향후 급격한 전력소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발전량 확대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태양광의 기여가 높을 것으로 보임

2019-2024년간 국가별 태양광 에너지 발전량 변화와 발전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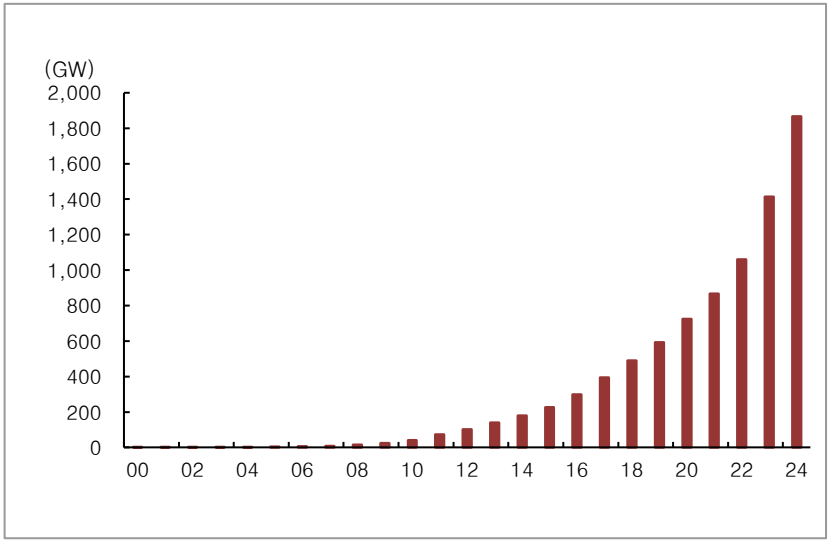
자료: Ember,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태양광,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현실적 대안

발전량의 증가는 빠른 설비 증설에서 비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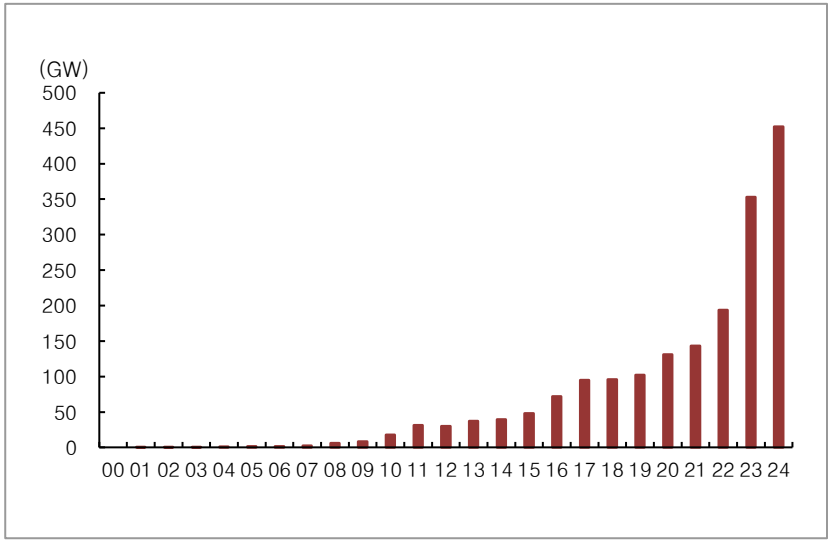
- 태양광에 의한 발전량의 빠른 증가는 태양광 설비의 대대적인 증설에서 기인하고 있음
- 2024년 현재 태양광 설비의 누적 설치 용량은 1865GW로 2023년에 비해 451GW가 증가
- 전년대비 설치용량 증가가 30%대를 유지하고 있음 2024년의 경우는 32%

전세계 태양광 설비 용량 추이



자료: Ember,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전세계 태양광 설비 연간 증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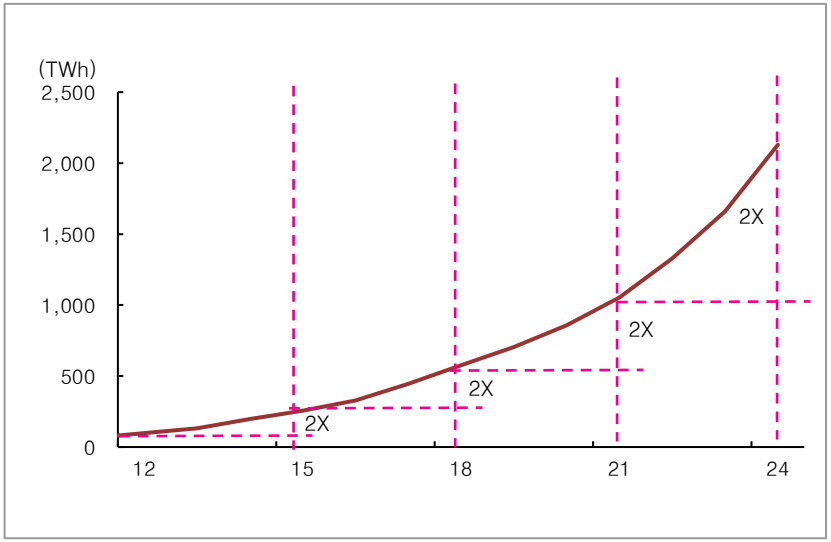
자료: Ember,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태양광,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현실적 대안

세계적인 태양광 확장에 다소 뒤처지는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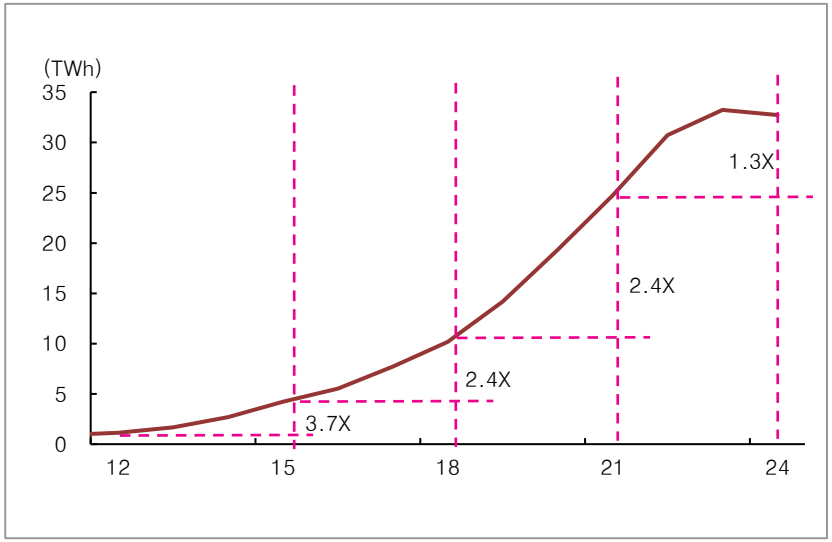
- 전세계 태양광 발전량의 증가는 3년마다 두 배의 속도를 유지하고 있음. 2012년 이후 지난 2024년까지 매 구간 태양광 발전량의 증가는 2배를 웃도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음
- 그러나 한국의 경우 2021년까지 빠른 성장 속도를 기록한 이후 최근 3개년 동안 1.3배 성장에 그치며 정체된 모습을 보임
-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혼란이 거듭되는 동안 전세계 추세에서 벗어난 더딘 행보를 보였던 것

3년마다 2배로 발전량이 증가해 온 전세계 태양광 발전



자료: Bloomberg,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태양광 발전 증가율, 최근 둔화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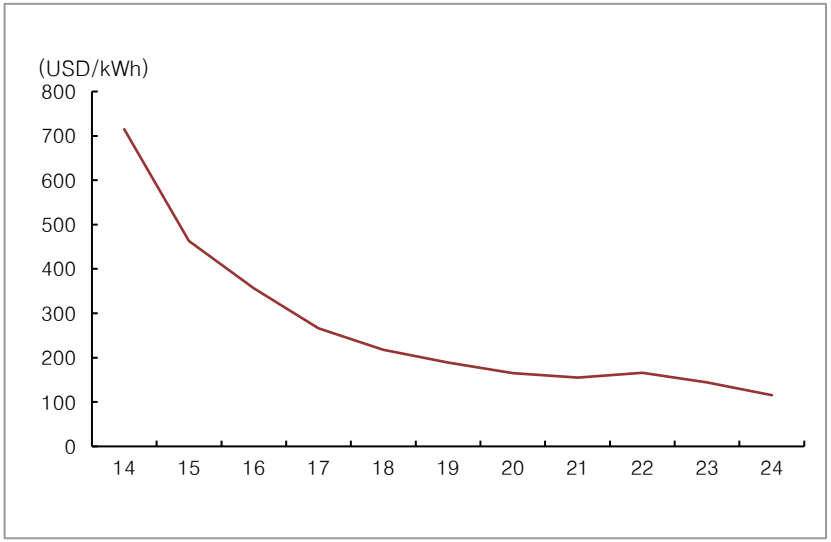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태양광,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현실적 대안

태양광을 보완하는 배터리, 가격 하락과 함께 가파른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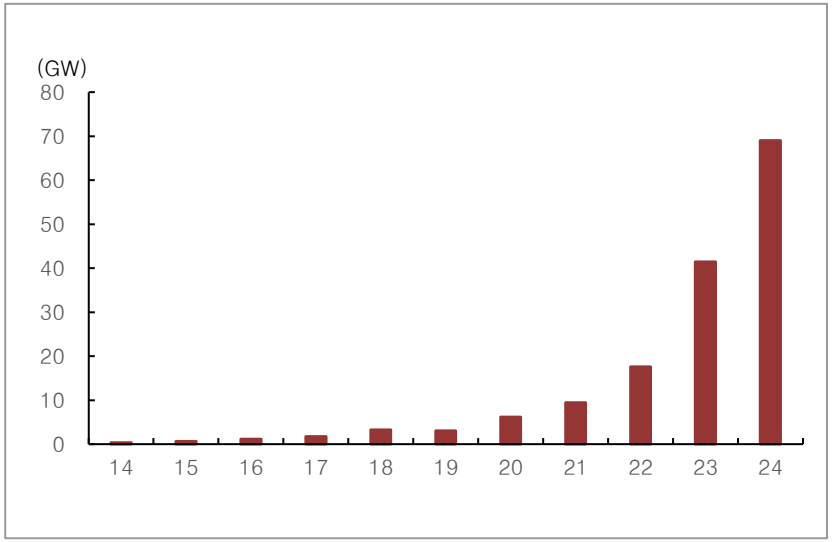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간헐성 문제 극복이 과제로 대두됨
- 간헐성 극복을 위해 천연가스 발전 등 부하조절이 필요한 발전원이 대안으로 자리해 왔으나 탄소배출을 자극하는 문제 노정
- BESS가 간헐성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나 가격 문제로 채택이 쉽지 않았음. 그러나 2020년 이후 지속적인 가격 하락으로 BESS 설비 증설이 폭발적으로 진행

평균 배터리팩 비용 추이



자료: Ember,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배터리 저장장치 설비 증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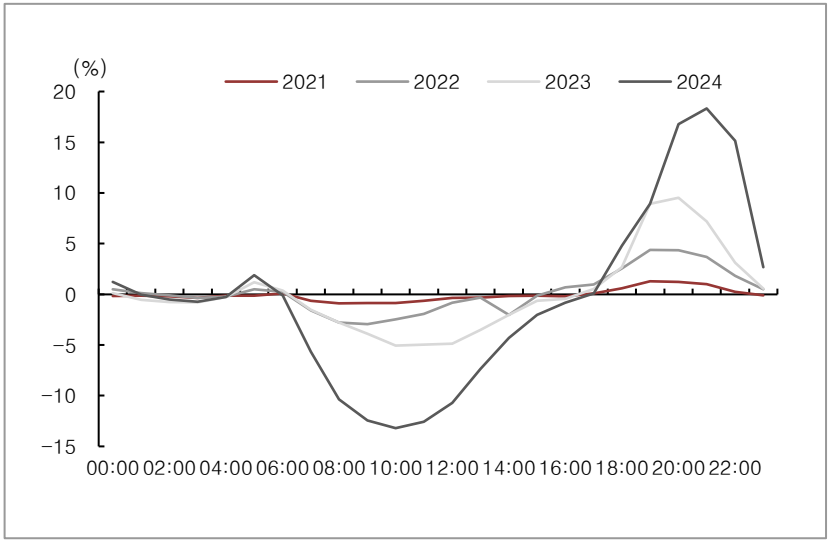
자료: Ember,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태양광, 전력 수요에 대응하는 현실적 대안

배터리 채용 확대로 전력망내 재생에너지 비중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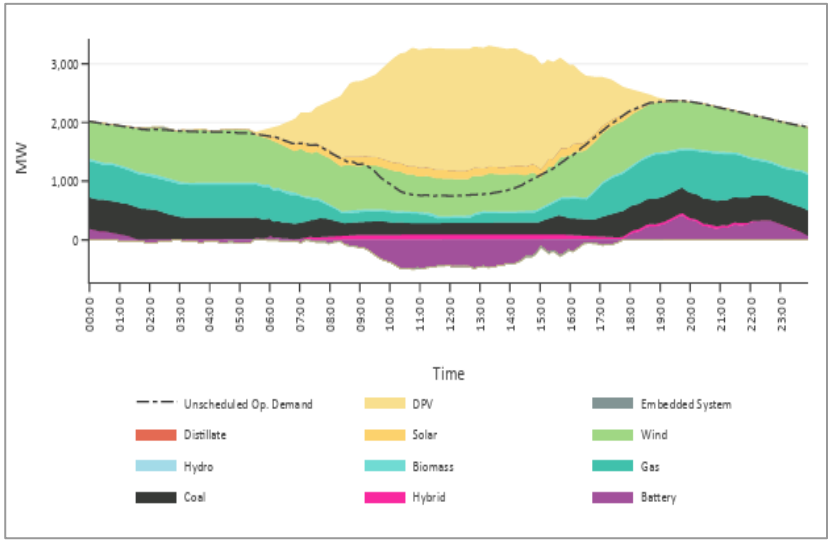
- 미국 캘리포니아주, 호주의 서호주 등에서 BESS 채택으로 태양광의 간헐성을 극복하는 사례 만들어지고 있음
-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24년 여름 배터리의 전력공급 점유율이 저녁 피크 시간대에 20%에 육박할 정도로 확대됨
- 실질적인 고립형 전력망을 유지하고 있는 서호주의 경우 배터리 채택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담당 비율이 91.1%를 기록
- 간헐성 문제로 신재생에너지 비중확대의 부담을 지적하는 경우 많으나 가격 하락이 빠르게 진행되는 BESS와의 연계로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확대가 가능

미국 캘리포니아 여름철 배터리 전력공급 시간대별 변화



자료: Ember,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서호주 전력망,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기록 2025.12.20일 91.1%



자료: AEMO,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에너지 전환의 방향

송전망과 전기 생산의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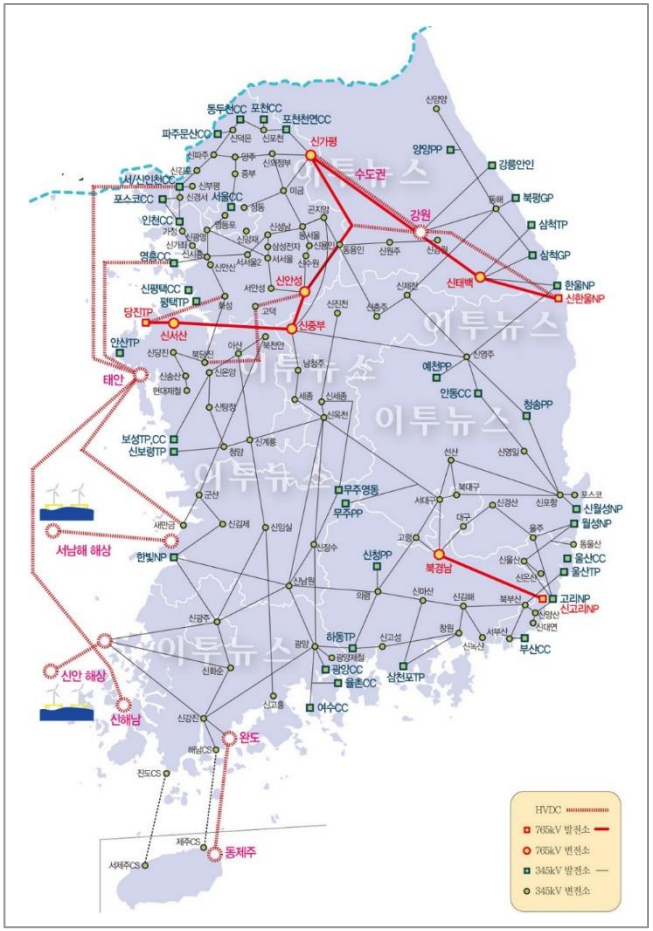
- 발전설비 뿐 아니라 송전망의 구축도 에너지 공급의 난제
- 초고압 송전망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극도로 낮은 상황에서 장거리 송전계획에 의존한 전력망 구축은 불가능
- 한국의 송전망은 기존 교류를 채택할 경우는 154kV, 345kV, 765kV로 구성, 추가로 500kV급 직류 송전망 HDVC가 전개되고 있음
- GW급 전기 수요를 발생시키는 대규모 데이터센터, 반도체 팹 등의 전기 수요 충적을 위해서는 765kV급 교류 전송망이나 500kV급 HDVC가 필요

송전설비 별 용량과 경제적 송전거리

		회선당 용량(MW)	경제적 송전거리(km)
교류	154kV	100 – 300	150
	345kV	500 – 1000	300
	765kV	2000 – 3000	600
직류	HDVC (500kV)	3000 - 4000	3000

자료: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2036년까지 한국 송전선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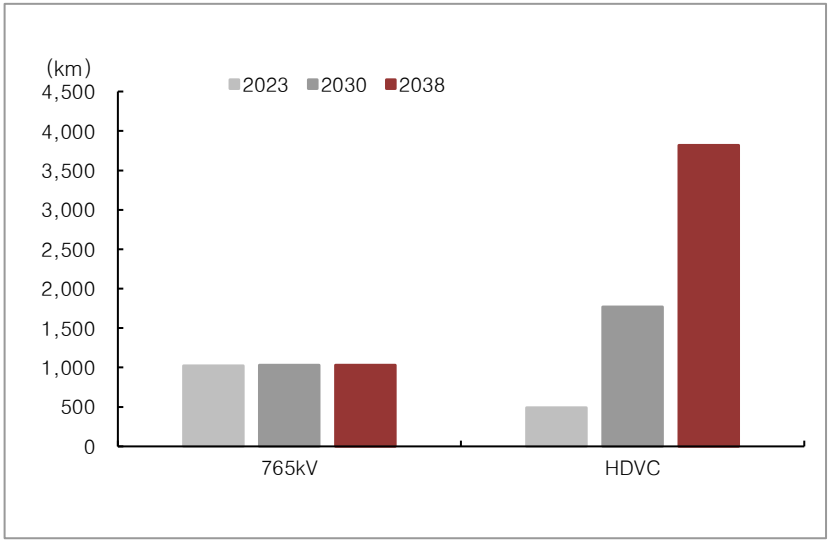
자료: 이투데이,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에너지 전환의 방향

산업화이전 평균온도보다 1.5°C 이상 상승한 2024년

- 발전설비의 확충보다 송전망 구축이 더욱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11차 전력수급계획 관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를 경우도 765kV급 교류 전송망은 2023년 수준에서 추가 증설이 어려울 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HDVC가 영동-수도권, 호남-수도권, 호남-중부권에 제한적으로 도입될 계획
- 용인국가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한 송전계획등 대규모 수요를 위한 구체적 송전계획이 절실한 상황

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른 고압 송전설비 계획



자료: 한국전력,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른 연도별 송전계획

전압	지역	준공	송전선로	회선	길이
765	영동권	'28.10	신태백-신가평	4	2
500DC	영동-수도권	'26.10	동해안1-신가평	2	230
500DC	영동-수도권	'27.12	동해안2-동서울	2	280
500DC	호남-수도권	'31.12	새만금-서화성	2	220
500DC	호남-중부권	'36.12	신행남-당진화력	2	290
500DC	호남-중부권	'38.12	신해남-서인천복합	2	350
500DC	호남-중부권	'38.12	새만금-영흥화력	2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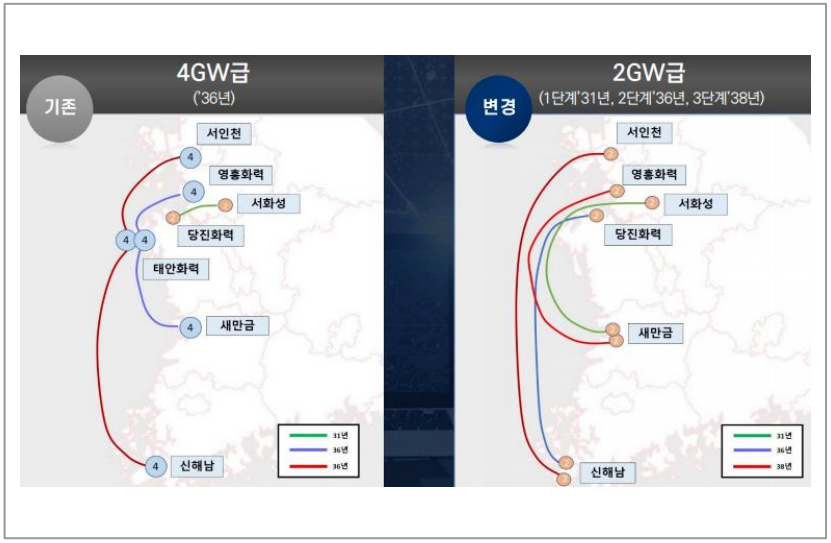
자료: 한국전력,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에너지 전환의 방향

에너지고속도로, 장기 에너지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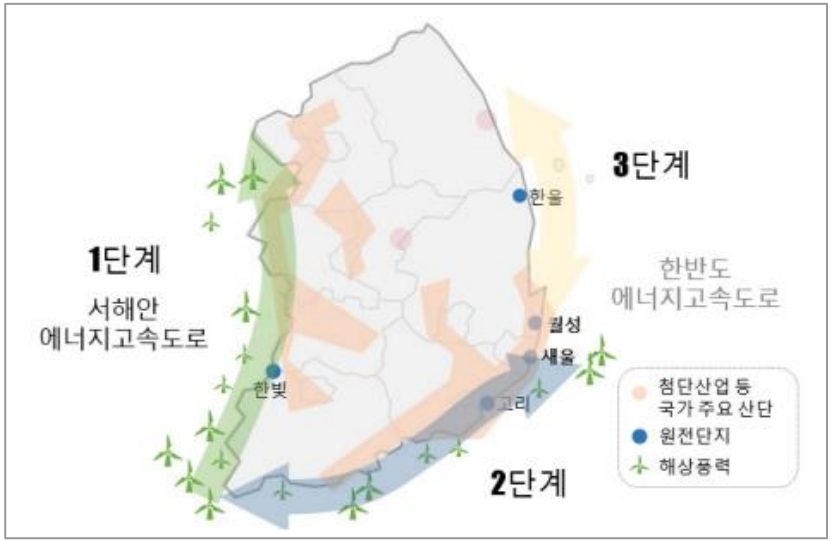
- 장기적으로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을 연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망의 구축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을 공약
- 1단계로 추진될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의 경우 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의 4GW급 계획에서 11차 2GW급, 단계적 설비 계획(2031~2038년까지 3단계)으로 변경되며 전국에 걸쳐서는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을 차례로 연결하는 방안이 추진됨
- 에너지고속도로의 전력공급원을 신재생에너지를 주축으로 구성하고 에너지 수요기업을 발전설비 인근으로 집중 배치하면서 에너지망을 구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와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신성장 산업을 아우르는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이어지는 산업정책이 마련됨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10차, 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자료: 한국전력,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에너지고속도로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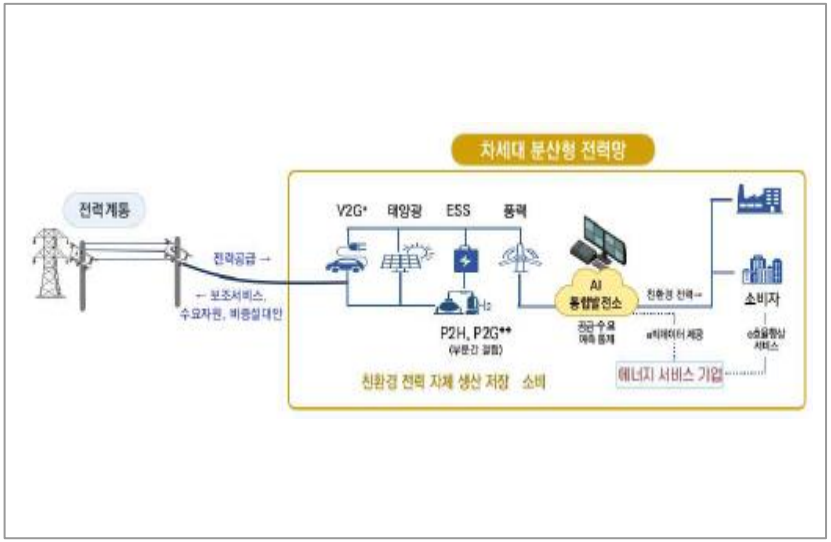
자료: 민주연구원,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에너지 전환의 방향

마이크로그리드, RE100산업단지로 지역에 기반한 전력망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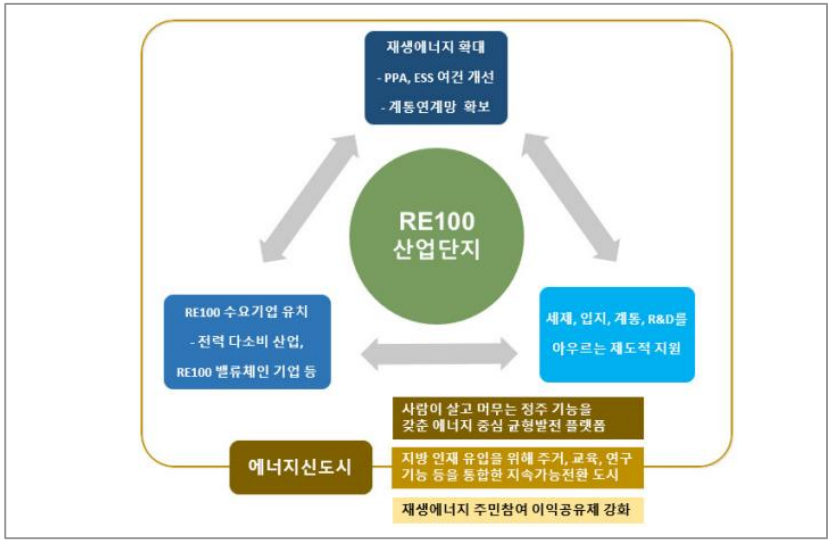
-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ESS 등 분산에너지를 AI기술로 제어하여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 기존 전력망이 송전망에 연결된 대형발전기의 전력을 전국 수요처로 전달하는 단방향 계통인데 비해 배전망에 연결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배전망을 타고 수요처로 보내지고 남는 전기는 송전망으로 다시 전송되는 양방향 계통을 의미
- 최대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에서 전력만 관련 연구기관(GIST 등), 공기업, 지역주력 산업(철강, 화학, 조선)등과 연계, 우선 추진
- RE100 산업단지도 대규모 재생에너지 수요기업의 선정, 배치 전력망 구성을 통해 중기적으로 추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 마이크로 그리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RE100 산업단지



자료: 민주연구원,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에너지 전환의 방향

산업정책 목표의 최 정점에 위치한 AI

- 새정부 산업정책이 목표 중 최 우선 순위로 AI 산업 부각.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명시적 목표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결합한 AI 클러스터 구축이 구체화하고 있음
- 국내 소버린 AI의 구축 뿐 아니라 세계 주요 하이퍼스케일러의 국내 데이터센터 투자 관련 협의가 속속 발표되고 있으며, 블랙록 등 관련 AI 투자계획도 이어지며 아시아 AI허브 도약의 구체적인 청사진 마련 중
- AI 센터 구축에 필요한 전력 등 인프라 측면의 대책이 에너지고속도로, RE100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 등 다양한 층위로 구체화 하고 있으며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구축을 통해 현실적 투자 진행 가능성 고조

NDC 국민토론 기후환경에너지부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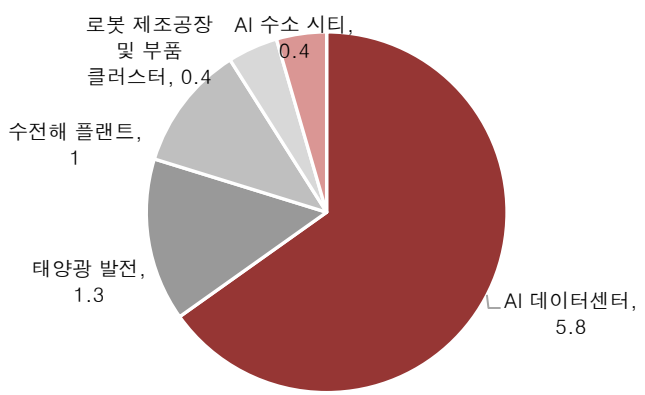
자료: 기후환경에너지부,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에너지 전환의 방향

지산지소의 첫 모델, 현대차 그룹의 새만금 투자

- 현대차 그룹, 2/27일 새만금 지역에 약 9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 발표
- AI 데이터센터 (5.8조) : GPU 5만장급 단계별 구축, SDV 및 스마트팩토리 데이터 처리 및 저장
- GW급 태양광 발전 (1.3조) : 데이터센터, 수전해 전력원(200MW), 2035년까지 단계 확보
- 200MW 수전해 플랜트 (1.0조) : 청정 수소 생산과 인근 공급 인프라 구축
- 로봇 제조 및 부품 클러스터 (0.4조) : 연 3만 대 규모 생산 및 파운드리, 협력사 확장 지원
- AI 수소 시티 (0.4조) : 스마트수변도시 기반 도시 단위 실증 모델로 인근 수전해 플랜트에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한 미래형 도시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 주요 내용



자료: 현대차그룹,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에너지 전환의 방향

새만금, 에너지 전환의 출발점

- 현대차 그룹의 새만금 투자 핵심사업은 GPU 5만장 규모의 데이터센터
- NVIDIA의 최신 아키텍쳐인 <Grace-Blackwell>을 채택할 경우 GPU 5만장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동에는 최소 100MW 전력 필요
- 블랙웰 이후 차세대 <Vera-Rubin>아키텍쳐를 적용할 경우 GPU 5만장 데이터 센터 구동에는 180MW이상의 전력 필요
- 새만금개발청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계획에 따르면 2030년대 초반까지 총 3GW(태양광 2.8GW, 풍력 0.1GW, 연로전지 0.1GW) 규모 인프라 완성 예정
- 3GW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에 전체 면적 9.4% 배정, 향후 10GW까지 확장 계획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자료: 새만금개발청,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개발 계획

구분		용량(GW)	사업추진	위치
육상태양광 (0.3GW)		0.2	새만금공사	1
		0.1	군산시	
수상태양광 (2.1GW)	1단계 (1.2GW)	0.5	새만금청	2
		0.4	전북,군산,김제,부안	
		0.3	한국수력원자력	
	2단계 (0.9GW)	0.9	새만금청	3, 4
풍력		0.1	민간	5
연료전지		0.1	검토중	6
합계		2.6		

자료: 새만금개발청,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Thank you

http://www.heungkuksec.co.kr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주소 (본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여의도파이낸스타워 14층)
(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2(여의도파이낸스타워 6층)
□ 전화번호 영업부 대표 02)6742-3600
□ 팩스 영업부 대표 02)6742-3629